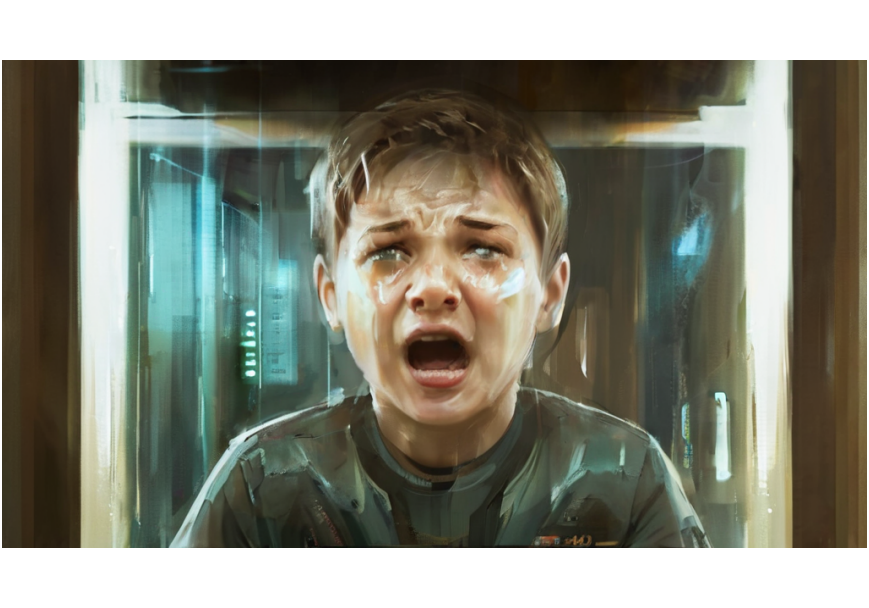
*6-Episode Seasonal Series*

# SOULRIDE

LAHOE HYUN AND THE MANTA STORY

## EPISODE 21

❖



“나 싫어요! 아빠! 나 좀 꺼내줘요!”

오리엔티스 조종실, 쾅 쾅 소리와 함께 어린 은성의 울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젊은 지후는 냉정한 얼굴로 은성의 울음소리를 외면한 채 모니터만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던 서창이 지후에게 다가가며 먼저 말을 건넸다.

“지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서현의 시스템만으로 가능할 수도 있잖아.”

재호는 일부러 뜸을 들여 대답했다.

“서현만으로는 부족해. 커버리지 사이즈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어.”

어리고 가냘픈 은성이 벽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소리가 이어지자, 서창이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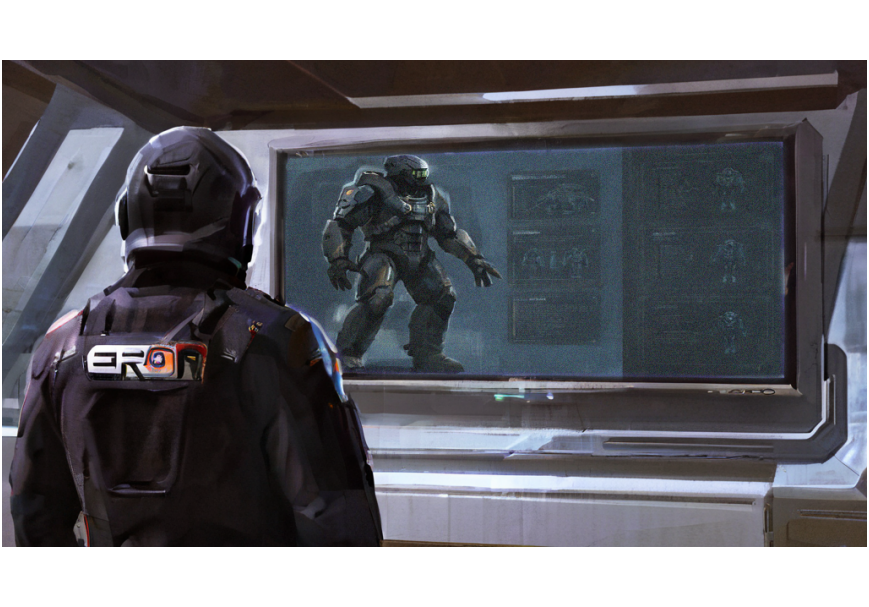
“애초에 이 실험이 다 무슨 소용인가? 지후, 자넨 이용 당하고 있는 거야! 그 에녹 기사단인지 뭔지 하는 것들은 다 사기꾼들일 뿐이라고! 우주의 질서? 그딴 게 무슨 소용이지?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해!”

서창이 분통을 터뜨리든 말든, 지후는 서창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안혹 화면만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창과 지후가 침묵하자 조종실에는 다시 쾅 쾅 쾅, 은성이 벽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울음 소리가 공허한 공간을 메웠다. 서창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대원들이 저마다 자리에 위치한 계기판 앞에 앉아 지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대로 작동한다. 버니어를 개시해.”

지후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종실의 대원들이 분주하게 계기판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대원들이 키패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은성의 울음소리를 순식간에 뒤덮었다.

지후의 모니터 위에는 오리엔티스의 비밀 격납고 안에서 가동을 시작한 육중한 인간형 아머 병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아머 유닛 ‘ZZBB51’, 은성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머 유닛 ZZBB51의 콕핏(조종실) 안이었다.



아머 유닛 ZZBB51이 가동을 시작하며 부품들이 분주하게 작동하기 시작하자 조종실 안도 온갖 소음과 진동으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두려움이 커진 은성의 울음소리도 덩달아 커졌지만, 이내 ZZBB51이 가동되는 소리에 묻히고 말았다.

서창은 대원이 저마다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를 외치는 것을 참담하게 지켜보다 다시 지후에게 시선을 돌렸다. 지후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는 상태로 묵직하게 명령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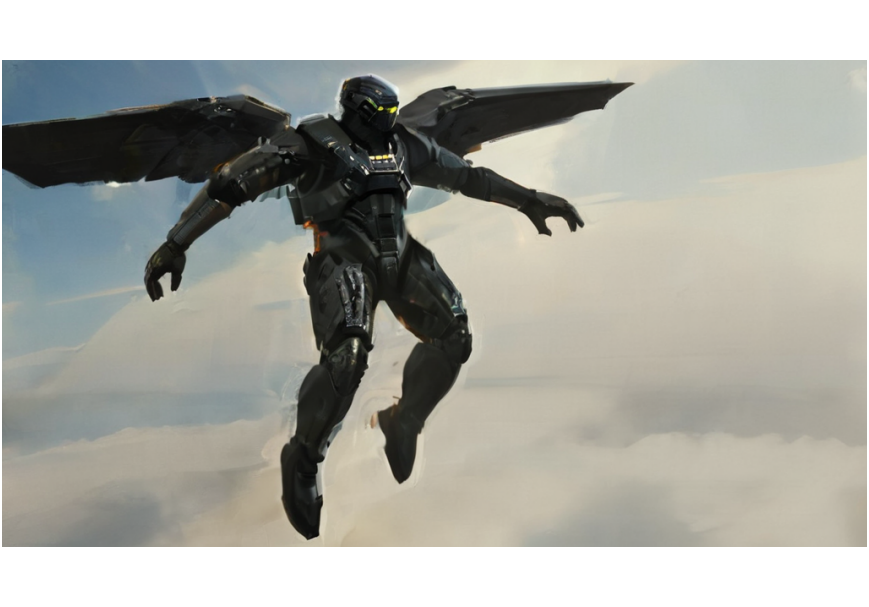
“ZZBB51 런치.”

대원 하나가 트리거 버튼을 누르자 ZZBB51이 위치해 있던 거대한 격납고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두웠던 격납고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며 ZZBB51의 외관을 밝게 비췄다. ZZBB51의 엔진에서 굉음과 함께 강한 열기가 방출되며, 기체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격납고를 빠져나온 ZZBB51은 하늘에 떠서 격납고 밖의 공터를 내려다 보았다. 지후는 ZZBB51의 카메라와 연결된 모니터를 통해 하늘에서 내려다 본 공터의 풍경을 볼 수 있었다. 썰렁한 공터에 아머 유닛 병기를 조립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작업대들이 어지럽게 널부러져 있고, 구석에는 격납고 외의 건물이 하나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였다.

“소울라이드 비히클 준비!”

지후의 외침에 조종실의 대원들은 명령을 하달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울라이드 비히클 준비!’를 외친 뒤 다시 분주하게 계기판 위의 장치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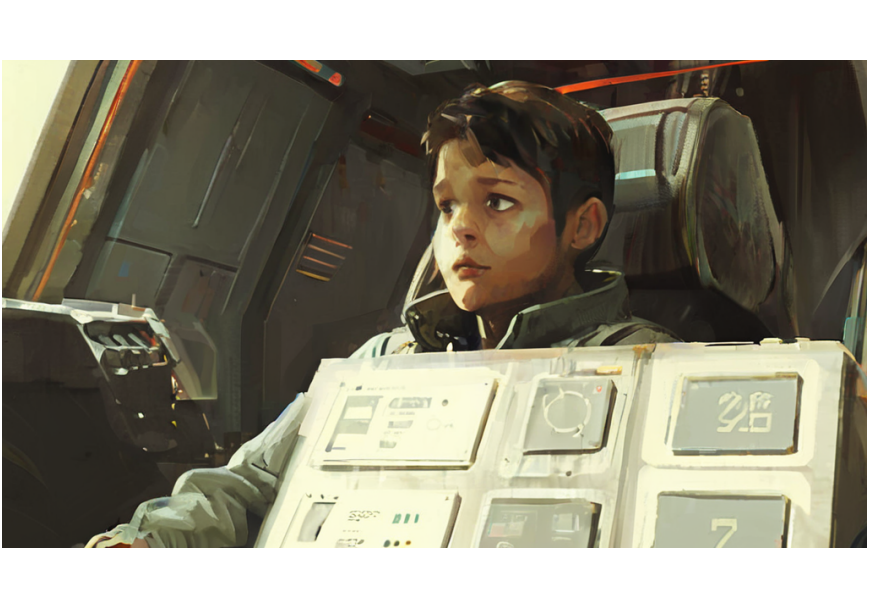


그러자 공터 구석에 덩그러니 자리를 잡고 있던 건물의 문이 열리며 목 뒤에 소울라이딩 장치를 한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빠져 나왔는데, 그 숫자는 어림짐작해 봐도 100명 정도였다. 건물에서 막 빠져나온 사람들은 손으로 햇빛을 가리며 하늘에 떠 있는 아머 유닛 ZZBB51의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

[은성, 네 임무는 매뉴얼대로 하는 것 뿐이다.]

은성이 탑승하고 있는 콕핏 안에서 지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후의 목소리에 진정을 되찾은 은성이 콕핏 천장을 올려다 보며 물었다.



“꼭 해야 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는 네 옆에 있다. 연습하던 대로만 해.]

은성은 고개를 숙여 조종간을 내려다 보았다.

[커넥트]

지후의 압박에 은성은 마지못해 조종간을 잡으며 연습한 대로 소리쳤다.

“커넥트!”

콕핏 안에 있던 캣츠아이가 붉게 발광하기 시작했다.

[은성, 도열을 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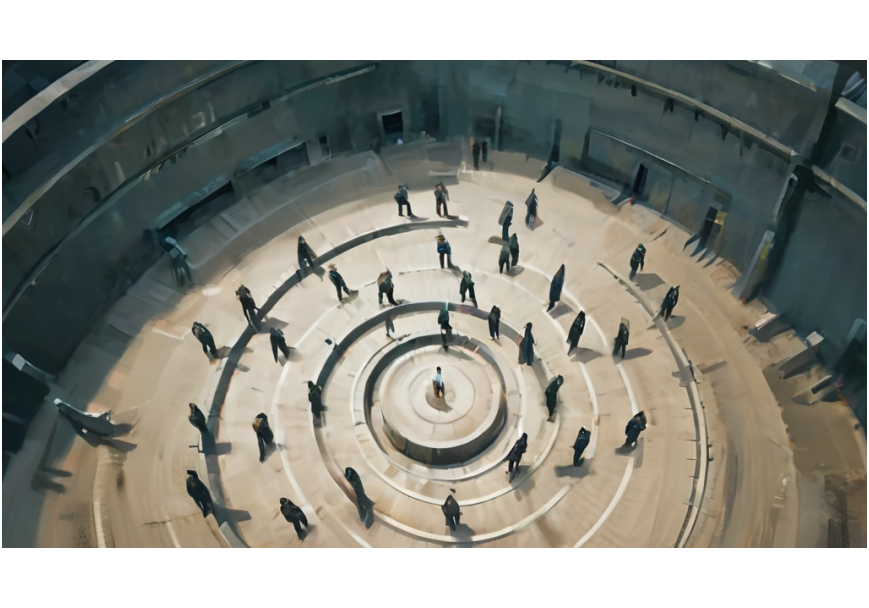
지후가 스피커를 통해 말했다. 어린 은성을 협박이라도 하듯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은성은 훈련 받았던 대로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해 ‘소울라이드 비히클’의 도열을 생각했다.

ZZBB51을 올려다 보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최면에 걸린 듯, 눈의 초점이 흐려졌다. 눈동자 속의 검은자위가 확장되면서 마치 대규모 플래시몹이나 군사 정권 국가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 정사각형의 대열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지후가 말한 ‘소울라이드 비히클’의 정체였다. 소울라이드 기술을 이용해 대규모로 통제되는 육체.

[질서!]
“질서!”

지후가 명령할 때마다 은성이 복창하는 것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지후의 명령인 ‘질서’는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가 나선형으로 대형을 짜서 움직이도록 하라는 것을 의미했다.

은성이 눈을 감고 집중하자, 소울라이더 비히클 무리가 은성이 생각한 대로 나선형으로 대형을 짜며 걷기 시작했다. 위에서 내려다 보는 소울라이더 비히클 무리의 행진은 질서정연하고 인공적이라, 위협적인 인상까지 줄 지경이었다.



❖

지후의 뒤, 서창의 옆에서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재호가 기뻐하며 소리쳤다.

“성공이야, 지후! 정말 대단해!”

흥분한 재호의 표정은 착잡한 서창과 대비되며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서창의 표정은 착잡함을 넘어 역겨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었다. ‘이건 죄악이야….’ 서창이 일부러 지후에게 들리도록 속삭였지만 지후는 서창의 속삭임을 가볍게 무시하며 마이크 너머 은성을 향해 다시 한 번 명령을 내렸다.

“사회!”
[사회!]

스피커를 통해 콕핏에 앉아 ZZBB51을 조종하고 있는 은성이 지후의 명령을 복창하는 소리가 조종실에 울려퍼졌다.

‘사회’라는 명령은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에게 저마다 지정된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명령이었다. 소울라이더 비히클 무리가 작업대로 흩어져서 작업을 시작하는 모습이 지후 앞 모니터를 통해 중계되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 건가? 지후, 우리는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들고 있네!”

재호는 지후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흥분을 넘어 광기가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질서? 이게 질서인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창의 질문에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은성이 흐느끼는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올 뿐이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나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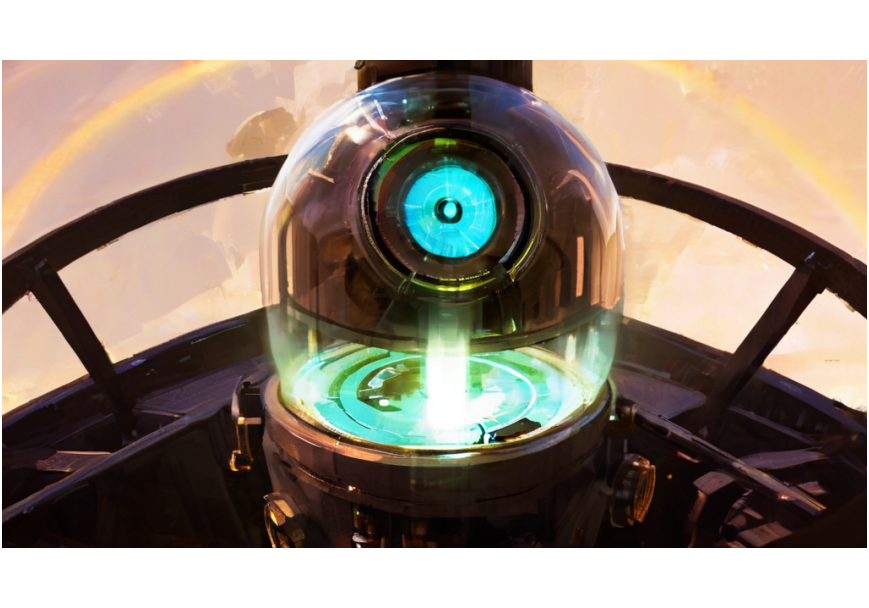
지후는 마이크를 향해 몸을 숙이며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은성, 넌 엔지누스다.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은성이 콕핏 안에서 몸을 뒤트는 소리가 들렸다.

[난 그런 거 몰라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요! 엄마! 엄마!]

은성이 몸부림을 치며 ‘엄마’를 외치는 동안, 캣츠아이가 서서히 발광하기 시작했다. 빛이 거세지면서 진동하더니, 진동은 곧 요동이 되며 캣츠아이가 주변 부품과 부딪히는 소리가 콕핏 전체에 울려퍼졌다.



인간으로 치면 ‘눈’에 대응되는 유닛 아머 ZZBB51의 부위가 붉게 빛나기 시작한 것도 캣츠아이가 요동치기 시작하면서였다. ZZBB51의 기체 전신이 붉게 달아올랐다. 기체의 이상징후를 관찰하던 조종실의 대원 하나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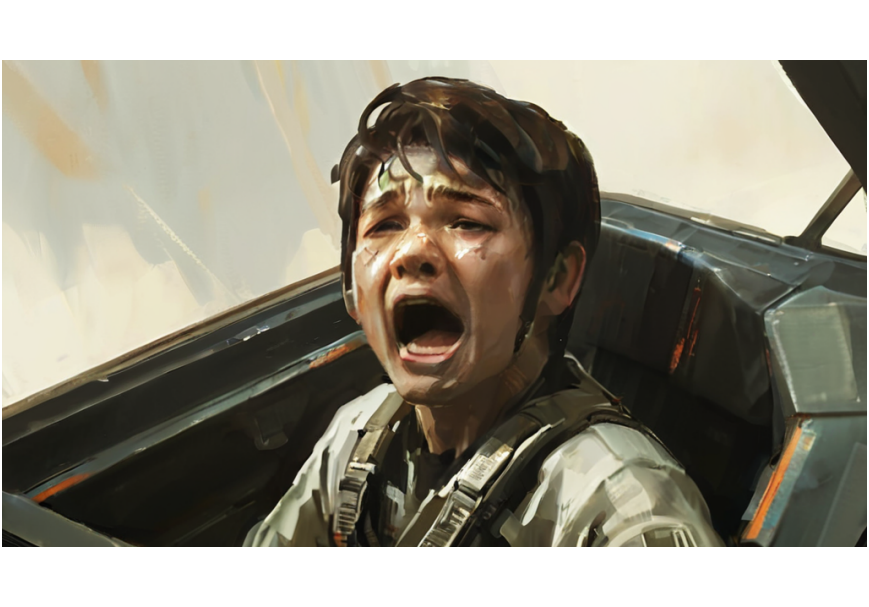
“싱크로 수치가 1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 현상입니다!”

줄곧 냉정함을 유지하던 지후가 처음으로 격앙된 표정이 되었다.

“은성의 바이탈과 마더 컴퓨터는?”
“은성의 바이탈 역시 100을 넘어갑니다! 컴퓨터를 오버클럭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아빠 미워! 난 아빠가 정말 미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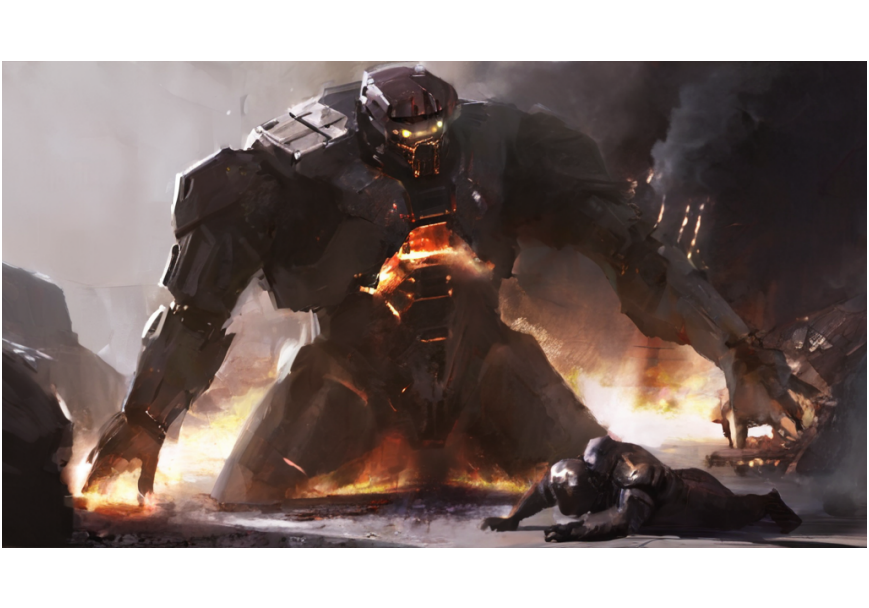


콕핏 안, 눈동자가 뒤집혀가는 은성의 몸부림은 더 이상 몸부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흡사 발작이었다. 은성은 손과 발로 조종간을 몇 번이나 내리쳤다. 조종간이 마치 아빠, 지후라도 되는 것처럼.

은성의 발작이 거세질수록 ZZBB51의 기체도 뜨겁게 달아올랐고, 기체가 달아오를수록 공터에서 작업하던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의 질서정연함도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곧 몇몇 소울라이드 비히클이 바닥에 쓰러지더니 눈이 뒤집히면서 다시 일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소울라이드 비히클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공터가 순식간에 아귀도가 된 가운데, ZZBB51에게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ZZBB51이 천천히 공터 아래로 고도를 낮추더니 소울라이드 비히클 근처에 위치했다.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는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빠 ZZBB51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이때 ZZBB51이 팔을 치켜 올리더니 그대로 한 소울라이드 비히클을 내리쳤다! 소울라이드 비히클이 참혹하게 도륙 당한 것은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ZZBB51이 다시 팔을 올리자 조각난 소울라이드 비히클의 잔해가 공터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다.



이것이 소울라이드 비히클 무리를 향한 ZZBB51의 무차별적인 학살의 시작이었다.

화면 송출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대원들은 패닉에 빠져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지만, 통제를 위한 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았다. 대원 하나가 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원격 제어도 되지 않습니다! 은성의 바이탈, ZZBB51, 마더 컴퓨터 모두 이상 폭주 중입니다!”

충격을 받아 몸을 떠는 재호의 옆에 있던 서창이 가운을 벗으며 말했다.

“지후, 자네는 인간의 선을 넘고 있어. 이게 그 대가일 거네.”

말을 끝마친 서창은 그대로 조종실을 나가버렸다.

*Continued to ep.22*

LAHOE HYUN & THE MANTA STORY

https://themantastory.com
e-mail : copyright_dept@themantastory.com
© 2024 TheMantaStory, Inc. All right reserved.